

KAA

Established
in 1973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2010 한국회계학회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일 시 : 2010 년 6 월 17 일(목) 16:30-18:00

장 소 : 부산 BEXCO APEC 홀

주 최 : (사) 한국회계학회

후 원 : KB 국민은행, 한국경제신문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http://www.kaa-edu.or.kr>)

인사말씀



국제기구들이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세계 10 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쟁력 순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FRS의 성공적인 정착이 국가회계투명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한 점은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회계학회는 2001년부터 회계투명성이 높고 시장의 건전한 회계관행 정착에 기여한 국내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투명회계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10 회째를 맞고 있는 투명회계대상은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대상의 범위를 공공기관에 까지 확대하여 공공섹터의 투명성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상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회계학회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회계투명성 평가모형을 매년 수정 보완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대상 선정과정에서는 개선된 투명성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계량적인 접근과 동시에 기업의 감사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지배구조센터의 평가결과 등 비계량적인 자료도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제 10 회 투명회계대상 수상 기업 선정과정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회계법인, 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들의 평가자료 제공, 전문가평가 지원 등의 다양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기업과 기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회계학회는 회계투명성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국가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

장 지 인

1. 투명회계대상의 의의

회계투명성 확보는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 더 나아가서 경제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위기와 미국의 엔론사태 등을 겪으며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회계학회에 1997년부터 시상하였던 "회계정보대상"을 2001년부터 "투명회계대상"으로 발전시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회계학회의 이와 같은 노력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을 알리고 경영 의사결정에서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또한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하여 부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일반대중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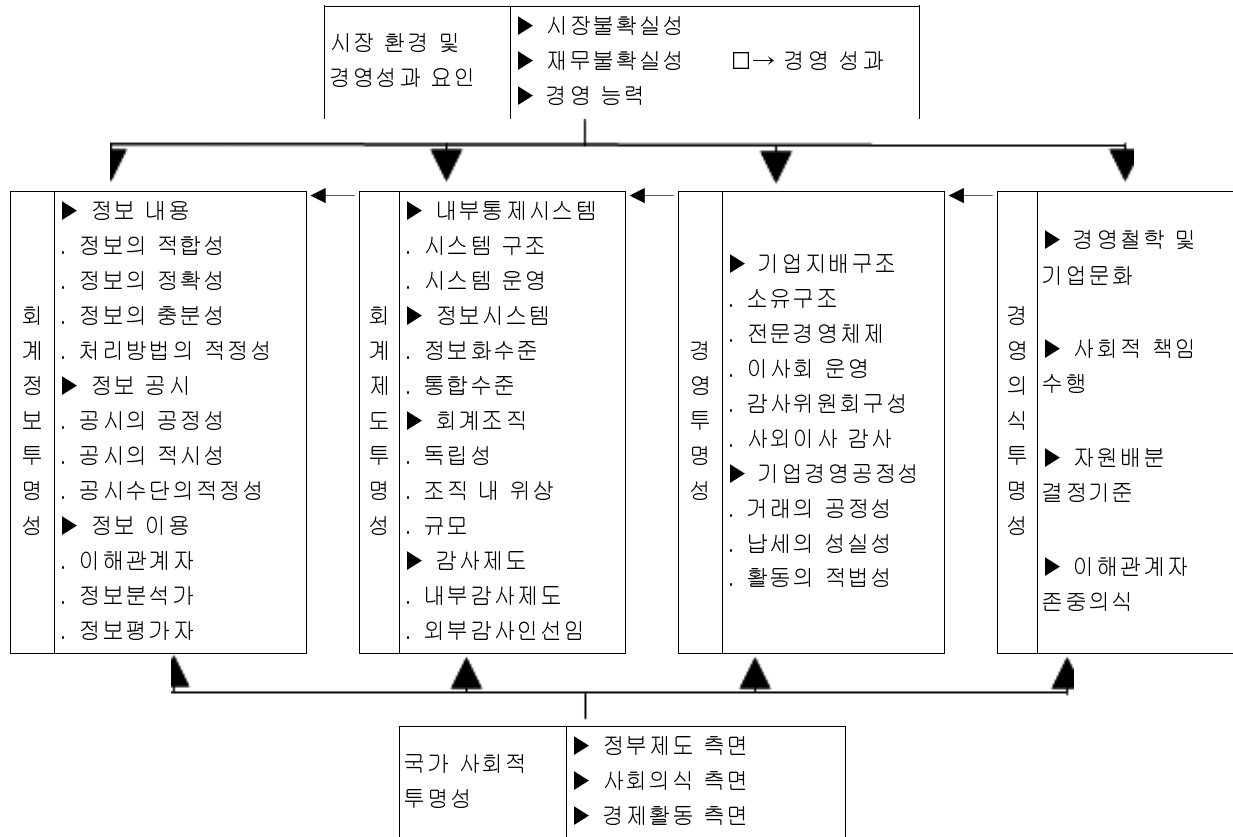
올해로 제 10 회를 맞게 되는 "투명회계대상"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서 투명회계대상위원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후보기업의 추천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투명회계대상 시상에 관한 규정” 제 3 조의 내용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1 차로 후보기업을 추천 받아 이 중 최종 후보기업을 추천하며, 선정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들 중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한국회계학회는 2002년 11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의 후원 하에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회계투명성의 향상 방안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해 재조명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는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다. 이러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발표된 이론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며, 공시정보 및 재무정보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유관기관의 규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상후보기업을 평가하여 추천하였다.

II. 역대 투명회계대상 수상기업

연 도	수상기업
2001	■ 주식회사 유한양행 ■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 대덕전자주식회사
2002	■ 벡센타이어주식회사 ■ 삼성 SDI 주식회사 ■ 한일시멘트주식회사
2003	■ 주식회사 태평양 ■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 주식회사 위스컴
2004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샘 ■ 주식회사 삼양제넥스
2005	■ 삼성전자 ■ 풀무원 ■ 네오위즈
2006	■ 주식회사 KT ■ CJ 주식회사 ■ 주식회사 동서
2007	■ 주식회사 포스코 ■ 주식회사 퍼시스 ■ (주)안철수연구소, (주)아이디스
2008	■ SK 텔레콤(주) ■ 주식회사 STX ■ 경남스틸(주)
2009	■ (주)케이티앤지 ■ (주)LG 화학 ■ 주식회사 한독약품 ■ 메가스터디(주)

III. 투명한회계대상 수상기업 선정을 위한 회계투명성 평가모형

1. 회계투명성 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



2. 평가방법

- multi-method 사용
 -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평가방법을 사용
- 전문가 의견조사법
 - 회계법인의 추천
- 직접적 조사분석
 - 재무보고서 등의 공시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 평가 모델사용
 -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공시수준, 재무적 성과 및 건전성 평가
- 규제기관 등의 평가자료 활용
 -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환경부 등의 적발 자료 활용

3. 평가단계

■ 1 단계 : “투명회계대상 시상에 관한 규정” 제 3 조에 따라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증권거래소로부터 후보기업을 추천 받음. 이 경우 상장 피추천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총 12 개 상장 기업, 7 개의 공기업을 추천 받음).

- 다음의 9 가지 항목(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 1)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
- 2) 상장 후 4 년 미만인 기업(평가자료가 3 년치 이하인 기업)
- 3) 증권거래소 관리종목
- 4) 최근 3 년간(2006 년-2008 년)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
- 5) 최근 3 년간(2006 년-2008 년) 증권거래소의 불성실공시 지적을 받은 기업
- 6) 신용등급 C 이하 기업
- 7) 최근 3 년간(2006 년-2008 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 8) 최근 3 년간(2006 년-2008 년)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기업
- 9) 최근 3 년간(2006 년-2008 년)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

- ERP 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 중 투명한 회계처리 및 충실한 재무공시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회계 관행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모범기업일 것

■ 2 단계 : 1 단계에서 추천된 총 12 상장 기업에 대한 2009 년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평가점수 총점기준(300 점 만점)과 공시부문(60 점 만점) 및 개발한 재량적 평가모델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후보기업 평가. 공기업의 경우, 자체 평가기준으로 평가.

■ 3 단계 : 후보기업을 ‘유가증권상장 대규모기업’, ‘유가증권상장 중견기업’, ‘코스닥상장 기업’으로 구분한 후 평가위원별로 각 군별 후보기업에 대하여 평가. *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규모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감사위원회설치 기준인 자산규모 2 조원 기준으로 함

■ 4 단계 : 선정위원회에서 후보기업의 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적 평가를 통해 수상기업 최종선정

IV. 투명회계대상 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1. 투명회계대상 선정위원회

- 위원장 서정우 (회계기준원 원장)
- 위 원 김지홍 (연세대학교, 차기학회장)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비상임 논설고문)
 이창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장지인 (중앙대학교 교수, 학회장)
 정기영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정영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전성빈 (서강대학교, 평가위원회 위원장)

2. 투명회계대상 평가위원회

- 위원장 전성빈 (서강대학교 교수)
- 위 원 권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김완희 (경원대학교 교수)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간사)
 정다미 (명지대학교 교수)
 정문종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V. 투명한 회계대상 선정경과 보고

한국회계학회는 경영자의 투명한 회계의지를 격려하고 투명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되어 4회까지 이어졌던 회계정보대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01년도에 투명한 회계대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금년도 제 10회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회계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모범이 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회계학회 투명한 회계대상 시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전문경영체제의 정착성, ERP 시스템, 내부감사제도 등 내부통제운영의 투명성, 조세행정 및 감리결과의 투명성,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성,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및 경영혁신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년도 2010 투명한 회계대상 수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회계학회는 2009년에 기존의 회계투명성 평가모형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점수와 추가적인 계량지표를 포함해서 회계투명성 평가모형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회계투명성 평가는 평가모형상의 평가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들과 회계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과정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는 금융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걸쳐 있고, 유가증권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코스닥상장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기업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가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에서는 한국의 7개 주요 회계법인에서 추천한 일반기업 12개, 공기업 7개 기업을 1차 후보기업군으로 선정하였다. 회계법인 추천요건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금감원에서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 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 지적을 받은 기업,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9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ERP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는 기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렇게 제 1 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 총 10개의 상장기업들이 1차 수상후보기업들로 선정되었다.

제 2 단계에서는 평가 1 단계를 통과한 기업들 들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재량적발생이익 모형에 의해 추정한 재량적 이익, 이익의 지속성 및 변동성, 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조사한 2009 년 지배구조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을 갖고 경영시스템의 적정성, 내부감사적정성, 공시적정성 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제 3 단계에서는 2 단계에서 분석한 자료 및 사업보고서와 수시공시 사항 등에 대한 현직 회계학 교수인 평가위원들의 심층분석 및 검토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 단계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적 평가를 통해 유가증권상장 대기업군에서는 (주)신세계와 (주)LG-Display 를, 중견기업군에서는 (주)대교를, 코스닥상장기업군에서는 (주)테크노세미켐을, 공기업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올해의 투명회계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수상기업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회계분야의 권위 있고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서정우 원장이 선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사위원, 정기영 한공회 부회장,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이창호 한국거래소 시 본부장,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술위원, 장지인 한국회계학회 회장과 김지홍 차기학회장, 그리고 전성빈 투명회계대상위원회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였다.

VI. 수상기업 및 수상사유

1.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정용진]

주식회사 신세계(이하“신세계”)는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사업부문으로 하여 198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다.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서 1999년 이후에 윤리경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 전문경영인의 투명한 조직 운영

신세계는 사업부문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인 이마트로 구성되어 있다. 백화점 부문은 박건현 대표이사가, 이마트 부문은 최병렬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으며 정용진 대표이사가 전사 총괄 경영을 맡고 있다. 3인의 등기 임원이 주요 경영현안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주석 외 3인이 사외등기이사로서 매월 1회 경영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있다. 현 전문경영인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투명한 경영철학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 확고한 기업윤리 문화 정착

대부분의 그룹 오너들이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지분을 편법 승계하려다 시민단체의 비판과 심지어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 상황에서 신세계의 경우 2006년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 등 편법 상속 논란의 와중에도 증여된 지분 중 물납으로 3,50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외부투자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대기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 등을 위해 그룹사 전체적으로 ‘자신의 뒤편이 계산하자’는 ‘Shinsegae Pay’ Campaign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왔다.

3) 지속적인 Process Innovation추구

가. 회계 시스템 적극 도입

신세계는 유통업계최초로 거래 내역을 담은 회계문서 전체와 각종 증빙자료 등을 관리하는 ‘전자회계시스템(Shinsegae Paperless Accounting System, 이하 SPAS)’을 개발하여 2006년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SPAS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이 모든 회계전표와 이에 첨부되는 증빙자료로 확대됨으로써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타회사의 경우 현업

혹은 사업부에서 회사 회계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원본데이터를 회계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엑셀파일 등으로 변환된 소위 정리된 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신세계의 경우에는 엑셀파일 등으로 변환된 자료 뿐만 아니라 SPAS 라고 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외부감사인에게 공개하여 회계상 모든 원본 데이터(원시증빙포함)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세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화되기 전부터, 기업윤리추진팀 등이 주체가 되어 WPM(Weak Point Management)을 운영하여 상품본부의 협력회사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본부 경리팀 및 회계파트 등이 주체가 되어 ASV(Accounting Supervisor)를 운영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관련 주요 업무 점검 절차를 파악하여 점별로 회계관련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설계 및 운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판매담당부서가 주체가 되어 ISV(Inventory Supervisor)를 운영하여 점별로 상품의 입점(선매출 후 매입사례, 교차판매사례)관리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기능, 대출입(점간상품 이동 시 대출입 확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 실질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신세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바 본사 조직 뿐만 아니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부분의 경우까지도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으로 나누어 판매담당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점포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경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해당 부문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4) 유능한 인적자원 보유

신세계는 계열회사 및 이마트부문과 백화점부문에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체계화된 회계조직 및 Process 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관계회사간 업무조정 및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회사 소속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을 구성하여 회사내 부문과 계열회사의 중요한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직 구성을 통한 내부적인 중요한 회계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과정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한 얻고 있다.

또한,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사의 분반기 결산 및 검토 시점이전에, 신세계건설을 포함한 지분법 적용 투자회사에 대하여 자체 가결산이 아닌 감사인의 검토 등 회계검증을 거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무제표 및 주석의 작성주체가 회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현금흐름표 작성, 이연법인세 등을 포함한 복잡한 주석사항 등을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고, 감사인이 이를 감사하는 **Process** 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도, 회사 자체적인 연결 **Package System** 을 활용하여 많은 자회사들의 재무제표에서 연결조정분개가 조정된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주석 등을 작성, 제시하고 있는 등 회계감사인이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충분한 **Support** 를 하고 있다.

5) 내부 감시기구의 독립적 활동 지속

신세계는 회사의 투명경영 및 투명 회계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 년 3 월부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3 명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개별/연결 결산 내부감사 수행, 외부 감사인 선임, 보상, 유지 및 업무감독,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내역 검토 등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Mission** 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재무, 회계 분야의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크게 (1)선임절차의 독립성, (2)감사의 권한 및 활동의 독립성 (3)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2.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수]

LG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85 년에 설립되어, 2004 년 7 월에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동시 상장되었다. 전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회사는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총자산)이 2007 년말 14.4 조원(13.8 조원) 에서 2009 년말 20.6 조원(19.5 조원)으로 43%(41%) 성장하였으며, 최근 3 개년간 매년 1 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시키고 있다.

회사는 국내 및 국제기준의 재무보고내부통제제도의 운영, 회계전문인력의 확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활동, global ERP 시스템의 구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국내 및 국제기준의 재무보고내부통제제도 운영

회사는 국내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Sarbanes-Oxley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내부통제제도를 2003 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관리부서는 회사의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서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인 미국의 PCAOB 규정에 따라서 내부통제 활동의 운용에 대해서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인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미비점을 보고한 경험은 없으며, SEC 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에도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

2) 회계 전문가 및 경험자로 구성된 재무회계팀

회사의 재무회계팀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체계적으로 정립된 내부통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산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매월 결산 수행 시 내부검증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 수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회사의 체계적인 결산 프로세스는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

회사의 감사위원회 전원은 독립적인 사외이사 5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법무,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받은 재무제표를 매 분기별로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세션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인 면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상시 조직으로 경영진단팀, 정도경영팀, 법무팀, 내부통제팀 등의 내부감사부서를 두어 정기진단, 수시진단, 사후확인진단 및 내부통제 운영의 평가 등을 수행하여 높은 수준의 내부감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을 두어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3) Global ERP 시스템의 도입

회사는 전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폴란드, 대만 등에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법인들의 Global single instance 를 실현하기 위해서 Global ERP 시스템을 2009 년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전사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회사는 2011 년부터 도입이 의무화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0 년부터 조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재무회계팀, 영업과 구매 등의 현업부서 및 외부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준비조직을 1 년여 동안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전 준비과정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 연구와 적용에 따른 도입효과 분석 및 해외 선진도입 기업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0 년도의 1/4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LG 디스플레이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는 투명회계공시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LG 디스플레이주식회사를 2010 년도 투명회계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한다.

3. 주식회사 대교 [대표이사: 박태영, 박명규]

주식회사 대교는 1986년 12월에 설립되어 학습지의 출판,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4년 2월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회사의 2009년 말 자산총계는 8,087억, 매출액은 8,455억으로, 매년 안정적인 매출 및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영업실적은 경영관리 및 주주이익 측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교는 투명한 이사회 운영, 회계처리규정(Global Accounting Manual) 운영 및 경영진단 팀 운영, 공시관련 시스템 정비, 회계시스템의 개선, 회계전문인력의 채용, 내부관리제도 강화, IFRS를 대비한 계열사 시스템 통합작업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회사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회사의 이사회 구성내역은 이사 10명 중 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거의 매월 1회 개최되며, 중요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출자,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의 처분·자금의 차입·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행위 등은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에 정책심의위원회, 인사성과위원회, CS경영위원회 등의 경영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를 포함하여 21개의 계열회사가 있으며, 주식회사 대교의 자회사로 13개의 국내 및 해외 자회사가 있다. 회사는 국내 및 해외자회사의 회계기준의 통일과 통합을 위하여 통합회계처리규정(Global Accounting Manual)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Manual은 회계와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연결회사내의 일관성 있고 통합된 단일의 회계기준을 이용한 재무보고가 가능하다.

회사는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으로 지배구조헌장, 윤리헌장, 공시정보관리규정의 제정 등을 통하여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주주중시경영 책임경영에 목표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구조의 구성과 한국자본시장에서 새로운 대기업상 제시를

위한 지배구조현장의 제정, “교육은 가르치고 깨우치는 고귀한 일”이라는 창업정신의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의 제정, 투명한 재무정보의 공시를 위한 공시정보 관리규정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감사위원회 직속의 감사팀을 운영하여 감사계획의 입안, 감사의 실시,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감사관계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의 입안 및 건의, 감사 및 경영관리에 대한 제 기법의 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주주를 비롯한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R 및 공시전담부서인 IR 팀에서 IR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IR 및 공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R 팀에서는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공시업무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최고경영진 주관으로 분기별 실적간담회를 실시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경영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러 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문 및 영문 IR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ERP 시스템 등 회계시스템 개선 및 Upgrade 를 위한 지속적인 내부적인 혁신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회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2011 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2008 년부터 5 월부터 IFRS 도입 TF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TF 활동을 통하여, IFRS impact 분석, 사내외 IFRS 교육 및 회계시스템의 재구축/개선 작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회계, 세무제도의 변화와 함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회계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회사는 회계 및 세무전문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회계사가 회계 및 IR, 경영진단 업무를 맡고 있다. 회사는 과거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아 왔으며, 금융감독원의 감리 시 단 한차례도 지적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수익인식기준, 이연법인세, 지분법 회계처리 등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과 같은 급변하는 회계환경에서 발생하는 회계현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국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회사는 전직원의 회계관련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입사원 연수 교육 시 회계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필수회계과목에 대한 강의 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 결산기별로 각 계열사별 회계실무자들은 외부감사인과 함께 회계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중요한 결산이슈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회사의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대교는 투명한 회계처리 및 회계전문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와 실질적인 투명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2010 년 투명회계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한다.

4. 테크노세미켐㈜ [대표이사: 정지완]

테크노세미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86년 5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및 LCD 제조용 식각액(Etchant)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18일 KOSDAQ 시장에 등록하였다. 회사는 선진기술의 국산화, 우리기술의 세계화라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창조적 인적자원의 육성, 기술 및 경영혁신을 추구해 가고 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SAP ERP 시스템 도입을 비롯하여 회계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2010년 투명회계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한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회사의 구체적인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위한 제도적 노력

회사는 적절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 과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아 왔다. 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회사에서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활동하고 있다.

회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공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다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로 구성된 회계팀이 매년 주축이 되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한 평가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히,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전사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무제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SAP ERP 회계시스템의 도입

회사는 2005 년부터 2006 년에 걸쳐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SAP ERP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꾸준히 내부적인 혁신작업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개선해오고 있다. ERP 시스템은 각 사업단위의 회계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이나 부정, 오류를 방지하고,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연결결산의 Quality Closing 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3) IR 및 공시활동

회사는 주주를 비롯한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R 및 공시담당자를 임명하여 IR 및 공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시담당자는 주기적인 교육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공시업무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신속한 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간 수차례 IR 행사를 가지고 있다.

4) IFRS 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회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2009 년 8 월부터 IFRS 도입 TFT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자회사 및 지분법적용회사들에 대해서도 연결결산 및 지분법회계처리를 위해 IFRS 도입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능력 배양과 자회사 재무제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회사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종속기업 및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수시로 내부감사팀을 통해 매출감사 등 영업, 재무상태 및 회계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을 수행하여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회계 및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5) 회계전문인력의 채용과 업무의 개선

회계, 세무제도의 변화와 함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회계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회사는 회계 및 세무전문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교육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익인식기준, 이연법인세, 지분법 회계처리 등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과 같은 급변하는 회계환경에서 발생하는 회계현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과 교육을 진행하였다. 회사의 회계담당 조직인 회계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의 외부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자체 인원 충원, 외부자문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회계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판을 마련하고 회사의 회계·세무 총괄전담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전사적인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컨설팅 기관과 Six-Sigma Project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재무부서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부서의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1967년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21개의 댐을 건설관리하고 있으며, 44개의 수도시설의 건설□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 시화조력발전소등의 신재생에너지, CDM 사업은 물론 13개국에서 16개의 해외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최상의 물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 결손없이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여 왔고, 과거 5개년 평균 20.5%에 불과한 부채비율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신용등급 A1(Moodys), A(STANDARD & POORS)를 획득하였다.

투명회계를 구현하기 위한 공사의 노력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우수한 자체감사시스템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 3) 국제회계기준의 선도적 도입 4)지속적인 재무건전성의 유지 5) 기업정보의 전면 공시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1) 우수한 자체감사시스템

독립된 감사실에서는 2002년부터 외부 비상임이사 위주로 구성된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정함으로써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왔으며,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시적인 일상감사를 수행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조언으로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발생가능성이 높고 예방적 효과가 큰 리스크를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지능형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청렴계약, 상위직 청렴도 평가제도, 상임감사 HOT 라인

구축 등을 통하여 회계오류와 부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기업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자체감사시스템은 아시아 지역 내부감사 **Best Practice**에 선정되고, 감사원 평가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인정받는 등 최고수준의 공공감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재무부서에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비상장공기업 중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사내 인트라넷상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운영 실태 보고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인의 검토는 물론 내부 감사부서와 협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회계숫자의 검증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의 검증을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였다

3) 국제회계기준(IFRS)의 선도적 도입

수자원공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공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 확정발표(2009.6) 이전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마스터플랜을 수립(2008)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사내 전담반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우수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다.

4) 지속적인 재무건전성의 유지

1967년 창립 이래 지속적인 순이익을 창출하여 (과거 5개년 평균 1,610억원) 출자자인 정부에 매년 당기순이익의 17%(5개년 평균)의 배당을 하는 한편, 잔여이익은 SOC 건설 및 운영에 재투자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왔으며, 과거 5개년 평균 20.5%의 낮은 부채비율 및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한

결과 추가적인 SOC 건설을 장기저리의 자금차입으로 충당하여 국가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5) 체계적인 경영공시시스템의 운영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자원공사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영관리부서내에 공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공시전담부서에서는 정보 유형별 공시책임제를 도입하여 회사내 모든 부서에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항목의 누락이나 내용오류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도입으로 적시성 있고 정확한 무결점 공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댐용수및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하수음용 초중등학교 급수시설 설치 및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설비운영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물사랑나눔단”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수자원공사의 업무특성과 연관된 “물의 고른 혜택”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공헌대상 3 년 연속 수상과 사회공헌수준진단 최고등급 획득 등으로 국내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관련조직에서부터 내부규정 및 회계조직,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 등을 갖추고 투명회계의 정착 및 회계전문성 확보는 물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도적 공기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공기업부문 최초로 2010 년 투명회계대상 수상기업으로 추천한다.